



중원의 월악산과 미륵리 사지



정재훈

〈 문화재발굴조사사업단장 · 전 문화재관리국장 〉

봄 별이 따스한 3월 하순인데
소백산맥의 사암 준령에는
아직도 흰눈이 상봉에 남아 있었다.
수안보 온천에서 여진을 깨끗이 씻
고 맑은 마음으로 계립령(鷄立嶺) 너

머 하늘재(寒暄嶺)를 바라보고 20km
를 들어가니 포암산(布巖山)과 부봉
산(釜峰山) 사이의 아늑한 계곡에 높
이 10.6m의 미륵대불이 우뚝 선 미
륵리 사지가 있다.

부봉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시냇물에 손을 담그자 차가운 감각이 전신을 짜릿하게 한다. 우리나라 가람은 남쪽을 향한 것이 많은데 비해 유독 미륵불은 북쪽 월악산을 향해 장엄하게 서있다.

신라의 마지막 왕자 마의태자(麻衣太子)가 망국의 한을 품고 개골산(皆骨山)에 들어갈 때 문경을 지나 북로인 하늘재를 넘어 이곳에 들렀다가, 월악산 덕주사(德周寺)에 머물고 있던 누이 덕주공주(德周公主)를 만나고 이 절을 창건했다는 이야기와 신라 화랑들의 북방경영의 뜻을 담아 창건했다는 속전(俗傳)이 전할 뿐 사서의 기록 속에 사력(寺歷)이 아득하다.

1977년 충청북도에서 발굴조사가 있었는데, 건물터에서 출토된 기와 중에 미륵당(彌勒堂)과 '明昌三年 金堂改蓋○○○ 大院寺主持○瓦立碑' 등의 명문(銘文)이 출토되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미륵대불을 모셨던 불전은 미륵당이거나 미륵전

이었으며, '명창(明昌)'은 금국(金國)의 연호로서 삼년(三年)은 고려 명종 22년, 서기 1192년에 해당된다. 또한 이때 금당 지붕을 고치고 이 역사를 주관한 사람이 대원사(大院寺) 주지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미루어보면 이 절은 이미 이때 보수해야 할 만큼 퇴락된 고찰이었다.

『고려사』에는 고종 19년(1232)에 승(僧) 우본(牛本)이 충주대원사 주지로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바로 충주대원사(忠州大院寺)가 이 절임직도 하다.

애석하게도 화재를 입어 일시에 소진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13세기 몽고의 난 중에 병화를 입은 것 같다. 1255년 10월의 『고려사』 기록에 몽병(蒙兵)이 대원령(大院嶺)을 넘자 충주(忠州)에서 정예한 군사로 천여 사람을 격살했다는 것이다. 이 대원령이 바로 대원사가 있는 한훤령(寒暄嶺)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256년 4월 몽고군이 충주성을 침공하자 성안의 사람들이 다 월악

신사(月嶽神祠)로 올라갔는데 홀연히 구름과 안개와 비바람이 몰려오고 번개가 치니 몽고군은 신령이 돕는 것으로 알고 겁이 나서 퇴각했다는 것이다.

월악산은 신라의 월형산(月兄山)이며 대사(大祀)의 삼산(三山)과 중사(中祀)의 오악(五岳) 다음에 소사(小祀)를 올리던 신령스러운 산이다. 월악산 남쪽 계곡에 월광사지(月光寺址)와 사자변신사지(獅子頻迅寺址) 및 덕주사지(德周寺址)가 있으며, 동쪽에 신록사지(神勒寺址)가 있다. 산상(山上)에는 월악신사가 있고 난공불락의 석성(石城)이 성문(城門)과 함께 완연히 남아 있다.

화랑의 모습처럼 인간적인 미륵불

월악산은 미륵리 사지와 마주 보며 북으로 불과 4km 거리이다. 한훤령은 죽령(竹嶺)과 조령(鳥嶺) 사이의 가장 낮은 곳으로, 신하는 일찍이 이곳을 기점으로 북로를 개척했고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선이었다. 고구려 온달장군이 계림령 이북의 옛 고구려 땅을 회복하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한 곳이 바로 이곳이요, 신라가 북진정책을 펴면서 일차적으로 넘었던 고개가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한원령과 조령을 따라 성곽이 구축되어 있다. 조령성은 조선 후기에 더욱 견고히 수축되어 삼관문(三關門)이 설치되기도 했다.

이 중요한 길목을 신라의 저 화랑들이 무심히 지나갔겠는가, 명산대천을 두루 살필 때 월악산의 영험한 산정과 계림령의 깊고 아늑한 계류에 하루쯤 쉬어가기도 했을 것이다.

마의태자가 하늘재를 넘어 이곳에 와서 머물다 갔다면 그때 태자를 따라온 한 무리의 화랑들이 이곳에 남지나 않았는지, 그래서 이 미륵불이 조성된 것은 아닐까, 화랑을 일컬어 미륵 선화(仙花)라 하였기에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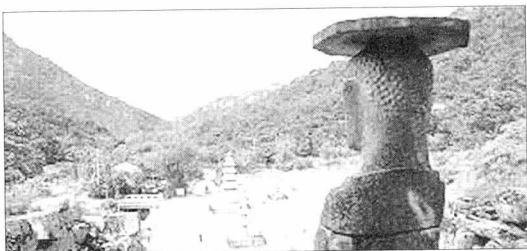
이런 연유로 미륵불은 북녘을 바라보고 섰는지도 모르겠다.

소사(小祀)인 월악산과도 무슨 관련이 있음직하다. 아니면 고구려 구강을 회복하려던 고려인의 염원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발굴중에 출토된 기와막새 무늬들이 통일신라의 수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미륵불 앞의 팔각석등이나 미륵당 동편 발가의 3층석탑과 초석의 주좌에서 통일신라의 기법이 보이며, 미륵리 학교 운동장 앞에 옮겨져 있는 반가상도 그러하다. 미륵전 앞의 5층석탑이나 4각석등과 당간지주 등은 완전한 고려의 석조물인데, 탑 앞의 4각(四角)석등은 미륵전 앞의 8각석등과는 형태도 만든 솜씨도 달라, 같은 시대의 석등이 아님을 알겠다. 기와도 고려시대의 범자문(梵字文)이나 일휘문(日暉文)와 당이 나온 것은 시대를 두고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암막새의 들림새가 길게 밑으로 처진 것이 없다.

미륵대불은 입상인데 머리에 갓을



쓰고 반달 같은 눈썹하며, 직선으로 감은 눈과 두터운 입술이 신비감은 없지만 화랑의 모습처럼 인간적이다.

아마도 대범한 사람이 만든 것 같다. 굵은 목에 삼도(三道)는 가늘고, 범의는 통견(通肩)인데 몸 전체는 적당히 처리하여 네 돌을 겹쳐 만든 것으로 보아 웅장하고 큰 것에만 뜻이 있었나보다.

팔이나 손은 빈약하고, 왼손에는 약병을 들고 있다. 이 석불은 8m×9.7m의 장방형 석실 속에 있는데 동서, 남의 내벽 높이가 6.1m로서 긴 장대석으로 정자형(井字形) 구조로 짜올려서 그 사이에 잡석을 채운 것이다. 천장은 목조건물로 덮었던 것인데, 석불을 가운데 두고 굴내에 동서 4m 남북 5.3m 간격으로 사천주

(四天主)를 세웠던 초석 4개가 남아 있다.

이 미륵전은 사천주를 고주(高柱)로 올리고 삼면의 석축 위에 기둥을 세워, 높다란 중층 불전이 서고, 이 불전 앞에 오간(五間)의 반 지붕 전실(前室)이 섰던 것임을 초석배치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불전 삼면의 석벽 동, 서, 남면 하단에 각 6개씩 18개의 감실(龕室)이 있고, 상단 감실은 동, 서로만 각각 6개씩 12실이 있다. 감실 내에는 소형 불상을 안치하였던 것이다.

동쪽 벽 입구 하단의 첫 감실에는 높이 43.5cm, 너비 62.5cm의 석판 두 장에 나한상을 돌씩 조각하여 포개놓았다. 두번째 감실에는 입체의 보살상 1구가 있는데 높이가 53cm이다. 화상(火傷)을 입어 몹시 손상되었다. 원래 이 감실에 모셨던 불상은 아닌 것 같다. 세번째 감실에는 불두(佛頭)가 없는 파불이 많은 손상을 입었는데, 수인(手印)은 항마축지를 하고 있다. 다섯번째 감실에는 파불이 된 보살상 1구가 앉아 있다.



미완성의 작품인가, 파손된 석불인가

미륵대불 뒷면 서쪽 끝의 감실에는 돌씩 조각한 나한상의 석판 두 장이 포개져 있고 남면 석축과 서면 석축이 직각으로 꺾이는 첫번째 감실에 삼존을 조각한 석판 두 장이 포개져 있다. 그리고 서쪽 벽의 두번째 감실에는 불상을 돌씩 조각한 석판 한 장이 들어 있다.

그외 감실에는 파불의 조각 등이 보이거나 어떤 상이었는데도 분간하기 어렵다. 원래 하단 16개 감실에는 나한상 보살상 등이 모두 들어 있었던 것 같다. 언제 누가 가져갔는지 참으로 아쉬움이 앞선다.

상단의 감실도 불보살들이 들어 있었던 곳인데 하나도 없다.

석불 뒷면에는 높이 101cm×너비 73cm의 석면에 여래좌상이 우견편단을 하고 연화좌 위에 앉아 있는데 반양각의 조각이다. 그 왼쪽 하나의 석면에 보살상인지 신장(神將)인지 음각으로 조각한 법의가 완연히 보인다. 아마도 석실의 큰 돌벽면에는

장엄한 불보살이 가득히 조각되었던 것인데 화상을 입어 떨어져나간 것 같다.

이 절은 금당 전실 기단에서 축선 고저를 보면 금당 앞 팔각석등이 3m 낮게 있고 5층석탑이 4m 낮고, 중문(中門)은 11m 낮게 서있어 미륵전을 밑에서 올려다보면서 오르게 되어 장엄한 조화의 효과를 내었다.

절 경내의 기암괴석 사이로 시내가 흐르고, 동쪽과 서쪽으로 시내를 두고 건물들이 자연지세를 따라 배치되었던 것인데 동쪽의 건물지가 흠에 덮여 모두 걷어내었다. 사각석 등은 파손이 심하지만 완전 복원이 가능하고 미륵석불 앞에 파손된 석상도 접착하면 본래 모습을 찾겠으며, 당간지주도 육엽연화문(六葉蓮花文)이 새겨진 장중한 것인데, 지주들 하나가 부러져 있어 접착하여 꽃이만 끼우면 복원이 가능하다.

둘거북은 비좌가 분명하다. 길이가 6m가 넘고 높이가 1.8m 되는 한국 최대의 크기인데, 음각으로 새긴 새

끼거북 두마리가 옆에 붙어 있고 구갑(龜甲)이 없는 소문(素文)이다. 행여나 옆의 축대 속에 비신(碑身)이나 묻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부봉산 계곡에서 물길이 미륵전 후면의 석벽과 서쪽 지반을 침식하고 있어 석축으로 쌓았는데, 이를 좀 더 안전하게 보강해야 하겠다. 석실 서쪽 기단을 4m쯤 시내 속으로 덧씌워 쌓고 미륵전 후면에 바로 때리는 물줄기를 상류에서 계류를 막아 서쪽 지류로 물이 흐르게 돌려야 하겠다.

또한 미륵전 동쪽의 300m 거리의 하늘재 산자락에 있는 거대한 석불 1구가 파손되어 있다. 불두(佛頭)가 부러져 나가서 앞면을 땅에 박고 있는데, 양 어깨가 완전하고 삼도가 뚜렷한 목이 있다. 그리고 한 돌은 좌상의 하체로서 수인과 범의의 끝부분이 가냘프게 조각되었다. 원래 미륵불처럼 조립하여 하나의 불상이 형성되도록 되었던 것인데, 무릎과 어깨 사이의 하체부분이 없어져 버렸다. 미완성의 작품인지 파손된 석

불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어느 시대 무지한 석수가 정을 대어 석재로 떼어 썼나보다. 파불의 부러진 석면에 정 자리의 깊은 상흔이 남아 있다.

미륵리는 더운 삼복에 오면 냉천의 시냇물에 더위를 씻을 만한 곳이며, 기암절벽과 선인의 숨결을 따라 세상의 번거로움을 접어들 수 있겠다. 가을이면 만산이 홍엽으로 덮여 뜻있는 이와 조용히 숲길을 걸으며 시원한 산바람 속에 은밀한 자연을 느끼며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중원 문화권(中原文化圈)의 비경을 더듬어 취할 만하다.

돌아오는 길썰에는 당산숲이 유난히도 눈길을 끌었고, 퇴락한 서낭당의 이끼낀 기왓골이 한결 아름답게 느껴졌다. 송계계곡과 충주호로 이어지는 월악산의 진경은 미륵리 사지와 덕주사가 있어 더 한층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잇게 한다.▲▲